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학기	2026 년 1 학기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Ludwig Maximillian University of Munich		
학 번	2024-18855	이 름	김형찬
소 속	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		

본인은 서울대학교 국제처 주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국제처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학생 안내, 프로그램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2026 년 8 월 15 일
작 성 자	김형찬

I. 교환 파견 동기

서울대학교에서 여러 외국인들을 만나며 해외 대학들의 서로 다른 문화들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과 군 복무를 수행한 뒤 복학한다면 2 년간 잠시 일상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학업에 복귀하기 적절할 것이라 생각하여 교환학생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저는 바이에른 지방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뮌헨대학교(Ludwig-Maximillian Universität München, LMU)에 파견받았습니다. 뮌헨대학교는 막스 플랑크, 하이젠베르크 등 40 여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낸 뮌헨의 명문대학교로 자연과학, 의학, 신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18 개의 학부를 지닌 종합 연구 대학입니다. 공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지만, 같은 지역에 존재하는 뮌헨공과대학교(TUM)와 학점과 수업이 일부 연계되는 등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뮌헨은 독일 바이에른 주에 위치한 인구 150 만의 도시로,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존재하며 매우 국제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가톨릭 성향을 갖고 있으며, 매달 가톨릭 관련된 축제가 열리거나, 슈퍼마켓이 평일에는 밤 8 시, 일요일에는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등 강한 전통과 자부심을 갖고있는 지역입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독일은 쉥겐 협정 국가로 90 일까지는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지만, 교환학생으로 파견가고자 한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교에서 파견 확정을 받고 파견교에서 Letter of Admission 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비자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준비하는데에 시간이 다소 촉박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다가 제 출국일 이전에 비자 테어민(인터뷰 예약)을 잡을 수 없어서 독일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비자를 받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셨다면 비자 대신 현지의 외국인청에서 거주허가증 (**Aufenthaltserlaubnis, Residence Permit**)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거주지(기숙사, WG, 자취 등)에 도착한 뒤 관할 시청에 안멜둥(**Anmeldung**,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안멜둥 및 압멜둥은 독일 현지인들도 치르는 절차로, 입주하거나 거주지 이전을 할 때에 진행합니다. 안멜둥을 완료한 뒤 외국인청의 안내대로 서류를 준비하여 테어민을 잡고, 인터뷰를 진행한 뒤 임시거주허가증(**Fiktionsbescheinigung**)을 받고, 또 테어민 통보를 받은 뒤 거주허가증(**Aufenthaltserlaubnis**)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절차가 일반적으로 뮌헨 교환학생의 경우 6 개월이 넘게 걸리기에 비자 없이 귀국하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 뮌헨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받으셨다면 뮌헨대학교 외국인교류부에서 외국인청에 연락을

넣어 관련 절차를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기숙사가 아닌 뮌헨 외부 작은 소도시인 운터슐라이스하임(Unterschleissheim)에 거주하였기에 입독 후 대략 3 달 안에 거주허가증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IV. 학업

1. 뮌헨에서의 학업

LMU 에는 항공우주공학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에 LMU Informatik(컴퓨터공학) 전공을 선택하여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습니다. LMU Informatik 의 경우 대부분의 학부 과목이 독일어로 진행되기에 저는 석사 과목과 실습, 그리고 기초적인 인공지능 이론을 다루는 학부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 있는 TUM 에서 흥미로워보이는 항공우주공학 석사과목도 청강하며(행정 시스템 상 성적은 받을 수 없지만 수강신청은 가능했습니다) 견문을 넓혔습니다.

LMU 는 LSF 라는 웹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해 수강신청과 시험 신청 등을 진행합니다. 다만 LSF ui 가 다소 오래되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또 교환학생을 대상으로는 예외적인 사항이 많아(시험을 Isf 로 신청할 수 없게 되어있어서 별도로 교수님께 연락드려야 함 등등) 꼭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메일을 주고받으며 확실하게 진행상황을 파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독일 대학교의 과목은 크게 **Vorlesung & Uebung(강의와 실습)**, **Praktikum(프로젝트 과목)**, **Seminar(세미나)**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외에도 세부 전공에 따라 추가적인 유형의 강의를 있다고 합니다. Vorlesung 과 Uebung 은 출석 및 과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강의 기간과 시험 기간이 분리되어있어 강의를 듣지 않고도 시험을 통과한다면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수강과목

- **Introduction to Foundation Model:** 파운데이션 모델(LLM, 트랜스포머 활용 인공지능)의 원리와 응용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LMU 와 TUM 에 해당 분야를 선도하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 **Grundlagen des Maschinellen Lernens(Foundations of Machine Learning):** 인공지능경망 이전까지의 머신러닝 기법들을 다루며 색다른 관점으로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합니다. 수업이 독일어로 진행되지만 시험과 강의자료가 영어로 구성되어 이해하거나 시험을 치르는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Softwarepraktikum: Computer Vision & Deep Learning:**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을 공부하며 학기 말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목입니다. 매주 과제가 있어 가볍게 듣기에는 다소 부담이 존재합니다.

- (청강, TUM) **Precise Navigation:** 항법에 대해 공부합니다. 이론적인 기반을 탄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이수 과목이 존재하여 바로 공부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청강, TUM) **Advanced Orbit Mechanics:** 궤도역학에 대해 공부합니다. CW 방정식과 다양한 섭동, 궤도 설정 등을 공부하며 중간중간 MATLAB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궤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V. 생활

1. 언어코스

저는 학기 시작 전 언어코스를 수강하며 같은 분반에 배정되었던 다른 LMU 교환학생들과 친해졌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기도 하고, 함께 여행다니며 여러 추억을 쌓았습니다.

학기 도중에는 뮌헨공대의 Language Café 행사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며 여러 교환학생들과

어울리고 무료 음료 및 간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2. 한인교회

또 저는 뮌헨한인교회에 출석하며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얻었습니다. 현지 한인들과 어울려 다니며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기도 했습니다. 유학생이 많은 도시인 만큼 교회의 어른들께서 자취하는 학생들을 초대하거나 한식을 요리해서 나눠주시는 등 여러 크고 작은 도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뮌헨에 유학 온 한국인의 입장으로 생활해보며 이 도시에 정착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3. 스포츠

뮌헨에는 ZHS 를 통해 뮌헨의 대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ZHS - breaking dance 를 신청하여 매주 수요일 밤마다 다양한 춤 동작을 배우고 독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4. 여행

뮌헨은 유럽의 중심지에 위치해있고 바로 근교에 뮌헨국제공항이 위치해있어 여행다니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도이치란트티켓(Deutschland ticket, 49 유로로 독일 일반 대중교통 구독)을 이용하면 근교 소도시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까지 무료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Flixbus 나 저가 야간기차를 이용하여 동부권(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체코, 폴란드 등)을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도 한국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의 국가들(영국, 프랑스, 그리스, 튀르키예)이나 아프리카(모로코, 이집트 등)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호스텔을 추천합니다. Hostelworld 앱을 통하면 지역별 호스텔을 쉽게 예약할 수 있고 호스텔에서는 다양한 나라 출신의 여행자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Hostelworld 기준 평점 8.5 점 이상이면 꽤나 안전하고 생활할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위생이나 도난 위험에 민감하시다면 에어비앤비나 한인민박도 적극 추천합니다.

5. 학교생활

저는 주로 주중에 강의 및 자습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뮌헨은 대학교가 기본 3 년제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구열이 뛰어납니다. 현지 한국인과 함께 다니며 LMU 메인캠퍼스의 PC-raum 3, Stadtbibliothek(주립 도서관, 슈타비), TUM 메인캠퍼스 도서관 등을 애용했습니다.

학생식당(Mensa)가 존재하지만, 자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캠퍼스 근처의 1/2 Moon 이라는 베트남 식당의 반미(Bahnmi)를 주 3 회 이상 먹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싸서 먹거나 슈퍼마켓(Lidl, DM 등)에서 저렴한 빵과 음료를 사서 마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비를 아꼈습니다.

저는 LMU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지만, TUM 캠퍼스에서 과목을 수강하거나 여러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행정 상 LMU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아 Science Hackathon, Language Café, Sustainability Day 행사, 다양한 강연 등 TUM 의 여러 콘텐츠를 즐겼습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다양한 현실의 장벽 앞에 부딪히며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고 스스로를 더욱더 몰아붙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반년 기간을 통해 잠시 조급함을 내려놓고,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함과 동시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의 항공우주공학과는 매년 40 여명의 신입생을 받는 반면 뮌헨공대의 경우에는 매년 신입생을 400 명가량을 받는 등 압도적인 규모와 인프라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간 아무런 허울 없이 소통하며 정말 어리석은 기초 수학 내용을 질문하는 학생이나, 수업시간에 맥주를 마시는 교수님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학문을 할 수 있다는게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공 내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고 여러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학생들을 보며 전공 자체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중심지 중 한 곳에 살며 세계 속 화제가 되는 다양한 갈등들을 실제로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아프리카 및 중동계의 불법 이민자들과 전쟁 난민(시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러가지 이념(환경, LGBTQ+, 공산주의 등)과 그들간의 대립 및 사람들이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살고 있던 내가 생각보다 좁은 세상 안에 살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사람들이 뼈로 느끼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공학자와 연구자들이 뛰어드는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이 어떤 연구를 해야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경험을 큰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국제협력본부와 실무관님, 그리고 공대 국제협력실에게 감사드립니다.